



미 증시, 예상치 하회한 소매판매 결과에도 강세

미국 증시 리뷰

15 일(목) 미국 증시는 1 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등 실물 경기 지표가 부진하며 혼조세로 출발하였으나, 직전에 발표되었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3 대지수는 상승 마감(다우 +0.91%, S&P500 +0.58%, 나스닥 +0.3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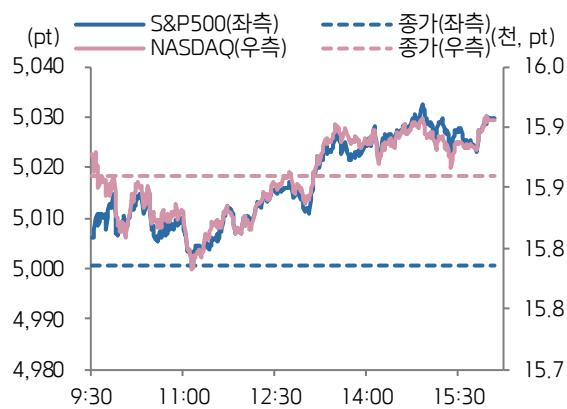
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1 월 미국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.8% 감소하며 컨센서스(-0.3%)와 전월치(+0.4%)를 모두 크게 하회. 금번 소매판매 지표 부진은 저조한 자동차 판매, 1 월의 소비지표의 변동성 및 계절성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. 한편,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1 월 소매판매는 0.5% 감소하며, 전월치(+0.6%)를 큰 폭 하회.

미국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올해 1 분기 실질 GDP 성장을 전망치는 직전 집계치(3.4%)에서 2.9%로 하락. 금번 전망치의 하락은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이 3.2% → 2.7%, 실질 총 민간투자 증가율이 2.7% → 2.4%로 하락한 점과 GDP 성장률에서의 순수출 증감 기여도가 0.22%p → 0.19%p로 하락한 점에 기인.

한편, 미국의 올해 1 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8% 상승하며 컨센서스와 전월치(0.0%)를 크게 상회, 전월비 기준 2022년 3 월(2.9%) 이후 월간 기준 최대폭 상승.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, 에너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.2% 상승했고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.7% 상승하며 상승세 재개. 또한, 미국의 1 월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.8% 상승하며 작년 9 월 이후 월간 기준 처음으로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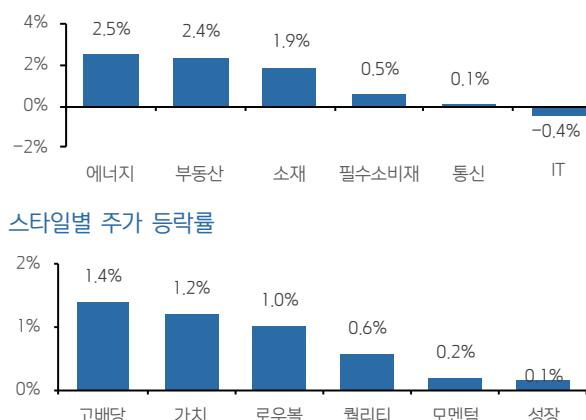
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4 분기 실질 GDP 는 전기 대비 0.3% 감소하며 컨센서스 및 전분기(-0.1%) 수치를 하회, 전년동월대비로는 0.2% 감소하며 마찬가지로 컨센서스(0.1%)를 하회.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3 분기에 이어 4 분기까지 두개분기 연속マイ너스를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로 진입.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, 서비스(-0.2%), 생산(-1.0%), 건설(-1.3%) 의 항목이 감소세를 보임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613.80	-0.25%	USD/KRW	1,333.95	-0.1%
코스피 200	351.21	-0.42%	달러 지수	104.27	-0.43%
코스닥	859.21	+0.69%	EUR/USD	1.08	-0.02%
코스닥 150	1,351.81	+0.83%	USD/CNH	7.22	+0%
S&P500	5,029.73	+0.58%	USD/JPY	149.93	+0%
NASDAQ	15,906.17	+0.3%	채권시장		
다우	38,773.12	+0.91%	국고채 3년	3.407	-0.7bp
VIX	14.01	-2.57%	국고채 10년	3.480	-1.5bp
러셀 2000	2,061.48	+2.45%	미국 국채 2년	4.574	-0.4bp
필라. 반도체	4,558.10	-0.16%	미국 국채 10년	4.230	-2.5bp
다우 운송	15,906.53	+0.52%	미국 국채 30년	4.409	-2.6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743.17	+0.72%	WTI	78.13	+1.94%
MSCI 전세계 지수	744.95	+0.73%	브렌트유	82.8	+1.47%
MSCI DM 지수	3,265.67	+0.78%	금	2016	+0.58%
MSCI EM 지수	998.86	+0.21%	은	22.95	+2.52%
MSCI 한국 ETF	63.79	-0.13%	구리	375.9	+1.59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1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48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52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27.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상장사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내용 공개
2. 원달러 환율 하락, 미 국채금리 하락 전환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
3. 저 PBR 업종들의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미국 1 월 수입물가지수가 MOM 0.8%, 에너지 제외한 수치 역시 0.6%로 증가 전환했지만, CPI 충격 선반영으로 인해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시장은 소매판매 부진으로 인한 금리인하 가능성에 초점. 미국 1 월 소매판매 MOM -0.8%(예상 -0.2%, 전월 0.4%),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 MOM -0.6%(예상 0.2%, 전월 0.4%) 예상치 크게 하회. 1 월 CPI 가 MOM 0.3% 증가한 점 감안 시 실질 소비 감소폭은 확대.

애틀랜타 연은 GDP 추정치 상 1 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주 3.4%에서 2.9%로 하향. 다만 연말 소비시즌 이후 계절적으로 1 월 변동성은 확대, 상품 디스인플레이션 재확인, 미 경제의 대부분인 서비스 소비는 견조, 소매판매 외 주택시장지수, 실업수당청구건수 등은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우려로 이어지는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국채금리, 달러 등 자산 변동성은 제한. 전일 연준 위원들이 강조했듯, 연초 데이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현재 금리인하 컨센서스는 6 월로 형성되어 연준과 시장기대 간 괴리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우호적.

15 일(목) 국내증시는 원달러 환율 하락, 미국채 금리 하락 전환에 힘입어 상승출발했으나, 모멘텀 부재로 상승탄력 약화되며 혼조세 마감 (KOSPI -0.25%, KOSDAQ 0.6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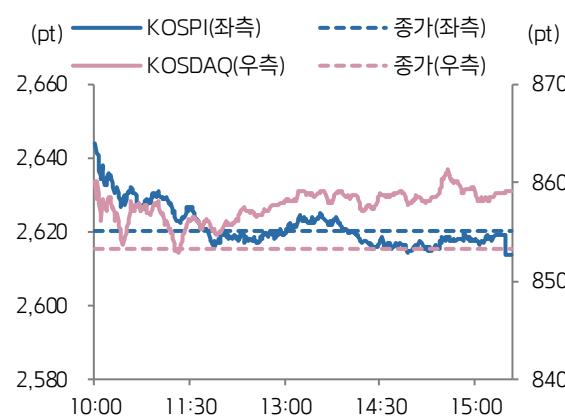
금일 역시 미 증시 빅테크 및 반도체 업종 상승 탄력 약화 등 모멘텀 부재한 영향으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일 것으로 예상.

코스피는 2,600pt 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, 코스닥은 5 일 연속 상승하며 2 월 들어 코스피 대비 강세. 1 월 CPI 발표 이후 엔비디아 실적(20 일),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(2 월 중순 이후) 발표까지 저 PBR → 고 PBR 단기 순환매 장세 이어지는 양상. 전일 반도체 중소형주는 차익실현 물량 출회된 반면, 이차전지 및 양극재가 코스닥 상승을 견인. 호실적 발표한 의료기기 강세 및 게임주 이틀 연속 강세, 화장품은 브랜드사 대비 OEM 강세보이는 등 뚜렷한 주도주는 나타나지 않음.

코스닥 강세는 저 PBR 매도에 나선 기관 물량이 주도하고 있으며, 외국인은 전일 10 거래일만에 코스피 매도 전환. 단기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본, 대만은 연휴 이후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섹터 주가 급등,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아시아 증시 내 매력도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. 전일 대만 증권거래소 역시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저 PBR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대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. 대만증시의 경우 과거에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유보세 및 배당 공시 의무화 도입한 바 있고, PBR 2.1 배, 주주환원을 52%로 기존에도 높은 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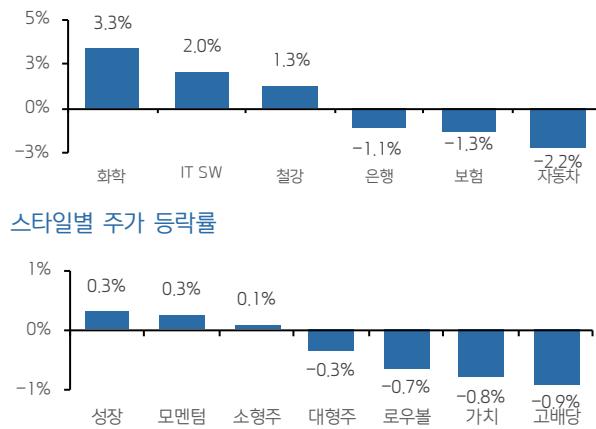
코스피 자금이탈 막기 위해서는 주주환원책의 강도가 중요. 금융위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 상장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. 인센티브는 정부 표창, 세무조사 유예 및 금전 혜택, 해외합동 IR 지원, 세금 감면 및 공제 등.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의 경우 PBR, ROE, ROIC 등 정량화된 재무 지표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. 그 외에 전일 보도 나왔던 '선 배당액, 후 배당일 제도' 포함 주주 환원 정도도 평가 지표에 담을 예정. 아시아권 증시 부양 및 선진화 방안이 탄력을 받으며 2 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사항 공개, 3 월 주총시즌, 4 월 총선까지 모멘텀 지속될 여지 확대. 주주환원 정책에서 행동주의 펀드 주주제안 증가, 지배구조 개선 논의로 순차적으로 확장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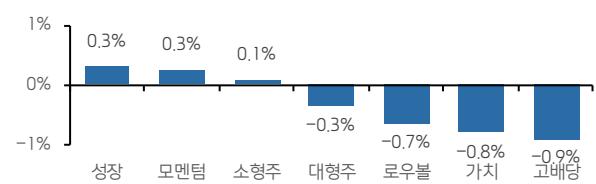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